

말기 환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제5회 세계병자의 날 특강에서 발췌 -

홍창기 교수(울산대 의과대학 학장)

오늘이 “세계 병자의 날”이고 내일 시작 되는 사순절은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게 하며, 극기, 절제, 자선을 권고하는 시기인데 고통속에 있는 이들,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봉사를 위한 준비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활동은 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팀의 구성원은 각자가 맡은 고유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즉, 인간의 품위를 지니고 평화롭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그리하여 인생을 의미있게 정리할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을 위하여 협동하게 되는데, 봉사를 받는 말기 환자는 수동적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팀의 구성원과 적극 협동하는 것입니다.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활동에 관여하는 여러 의사들, 간호사들, 가족과 친지, 성직자들, 자원봉사자들의 모두, 혹은 일부가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말기 환자도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신앙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번뇌, 기쁨과 희망이 됩니다. 고통(suffering)과 죽음은 어제든 오늘도 인간의 마음을 번민케 하는 인생의 숨은 수수께끼이며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그 해답(고통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목적이 있는가? 원인은 무엇인가?)을 찾고 있고, 임상 의학과 간호와 더불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입니다. 물질 주의에 젖은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아직 질병과 노령으로 고통당하기 전에는 이같이 중대한 사안을 똑똑히 이해하기를 외면합니다. 혹 불행에 짓눌린 사람들 특히,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과 공포속에 있는 환자들은 이런 중대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말기환자(terminal patient)의 정의는 : 어떤 특정 질병으로 수일 내지 수주(몇달-몇년)내에 사망이 올 것이라고 경험있는 임상자가 판단하는 경우 말기환자와 호스피스팀의 구성원이 모두 크리스찬이면 그들이 공유하는 믿음 때문에 인생에 대하여,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적어도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대화가 비교적 쉬워질 것이 예상되나,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루가 22 : 42)하고 스스로 받아 들인 고난 앞에서조차 움츠러드는 예수님을 볼 때 이런 모습은 차라리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

셨나이까? (마르코 15 : 34)하고 고통과 죽음 앞에서는 홀로 외로이 당하고 있다는 느낌(절대 고독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말기환자와 호스피스팀의 구성원이 모두 크리스찬이 아닐 경우, 심지어는 무신론자일 경우는 고통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각양각색

일 것이므로 호스피스 활동이 좀 색다른 도전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는 인도주의(humanism)가 그 철학적 가치관적 기초가 될 것이지만,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인도주의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활동이 종교의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교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뚜렷하지만 봉사자의 인격이 말기환자와 그 가족 혹은 친지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크리스찬 봉사자와 비크리스찬 환자간에는 전교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사도행전 2 : 44~47) 인간의 품위를 지니고 “뭐니 뭐니 해도 내 인생은 그 나름대로 잘 살아온 삶이었어”하고 평화속에서 임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가족과 친지 뿐 아니라 의료진, 간호팀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고, 이들의 삶에 오래가도 지워지지 않

는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이처럼 호스피스 상황에서의 봉사의 효과는 일방적이 아니고 상호간 영향을 주고 받게끔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Emmanuel)을 믿으며, 고통과 죽음을 체험하신 사람, 예수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그분은 죽음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어 이미(already here and now)시작된 하느님의 나라를 장차 완성하실(not yet)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신경) 이 믿음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긍정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예수 고난에의 동참), 고통의 가치를 승화시키는 (세계의 구원)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또 죽음이 종말이 아님을 믿고 영원한 삶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과 압박한 죽음이라는 실존앞에서, 또는 사랑하는 가족의 이유없는 고통과 억울한 죽음앞에서 이러한 믿음은 힘을 잃기 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즉, "이웃" (믿는 이들의 공동체)에 의하여 그 믿음이 계속 굳어지고 갱신되고 확인되어야 하는 처지에 높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묶여 있는 이 믿는 사람들이 임종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빠져 있는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이 크리스찬 호스피스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창조주의 모상으로 태어난 당신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 있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모든 이들로부터 품위를 존중 받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오 25 : 40)라고 말씀 하시는 예수께서 지금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므로(Emmanuel)지상에서의 생의 마지막에 다다른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려고 나는 노력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모두는 하
느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
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기에,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도, 이 불안과 고통속에서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오 5 : 2)그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 묵시록 21:4) 뒤에 두고 가는 가족들이 몹시 걱정되리라 여겨집니다. 십자가 위의 예수님께서도 아드님을 잃고 살아가시게 될 어머니를 걱정하시고 당신 제자에게 부탁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가족을 염려하시고 돌보시겠다고 하느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부탁하시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아기예수를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하고 의탁한 것처럼 당신도 가족들을 하느님의 섭리와 자비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속에서 그분의 폭신한 품안으로 당신 자신을 마음편히 던져 버리십시오.

말기환자로 하여금 자기 느낌(feeling)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기회를 주고, 도와주며, 진심으로 경청해 주고, 동감(empathy)해 주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며, 나눔입니다. 나의 느낌을 들어 주고 이해해 주는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죽음 앞에서의 처절한 외로움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위로가 없는 법입니다. 이런 동감은 동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병상을 방문하여 함께 하는 시간(언어를 통한 대화가 없어도 좋습니다)과, 나누는 대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전례와 성사를 통하여 이 동감이 표현, 전달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내적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감정의 앙금도 정리되는 결과도 생깁니다. 이 동감의 교류가 없는 대인접촉이나 전례나 성사가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선종하는 사람 곁에 있어 본 사람은 더 이상 종전의 자기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남아있게 될

수가 없습니다. 호스피스 봉사자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느님을 가까이 체험하게 되고, 자신의 성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봉사는,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으로 하여금 마련되는 우리안의 원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만 의지하는 봉사는 그런 원동력의 뒷받침이 없어 오래가지 않습니다. 봉사자는 능력의 성령,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에 의지하여 봉사를 할 때 지치지 않고 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갈라디아 6:22~23)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봉사는 정서적 안정과, 강인함, 꾸준함이 필요하고, 교육, 점검, 계속 훈련을 통하여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권고하고 싶은 책: “삶의 끝에 서서” 스즈끼 수녀(일본, 성심여대 교수)지음. 최 경식 옮김.